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3, pp.143-148, May 31,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143
JCCT 2022-5-17

데이터자본주의 시대 테크노컬처의 의미화 실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문화정치적 대안

Signifying Practices of Technoculture in the age of Data Capitalism: Cultural and Political Alternative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임 산*

Shan Lim*

요 약 본고는 21세기 데이터자본주의 시대의 강력한 물적 토대인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와 그 사회문화적 메타포를 비판적으로 사유하여 예술적 가능성으로 전유한 테크노컬처 사례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것의 대안성과 문화정치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데이터자본주의의 속성과 영향력, 그리고 그 반동으로 등장한 문화예술적 콘텍스트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첫 번째 사례인 퍼더필드의 <0달러 노트북컴퓨터> 워크숍은 예술과 테크놀로지가 서로 관계하는 배움과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유용한 범례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 사례인 그리스의 해커스페이스 HSGR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그리스의 재정위기, 국가의 창작지원 감소 등의 상황에서 공동의 진보적 '문화 공유지' 유형을 새롭게 제안하여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서 개발하였다. 세 번째 사례인 파올로 치리오의 <글로벌 다이렉트> 프로젝트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지배적 유형으로서의 국가와 커뮤니티 시스템을 향한 비평적 시민의식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테크노컬처 사례들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의미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문화정치의 맥락에서 진보적 정치 이념과 그것의 예술적 실현의 전통을 서로 조합하고 재발견한 실천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주요어 : 글로벌 금융위기, 데이터자본주의, 파올로 치리오, 해커스페이스, 퍼더필드

Abstract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the practical examples of technoculture that critically thinks network technology, a strong material foundation in the era of data capitalism in the 21st century, and appropriates its socio-cultural metaphor as an artistic potential. In order to analyze its alternatives and the meaning of cultural politics, this paper examines the properties and influence of data capitalism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cultural and artistic context formed by its reaction. The first case considered in this paper, Furtherfield's <Zero Dollar Laptop> workshop, provided a useful example of how citizens can participate in social change through learning and education in which art and technology are interrelated. The second case, Greek hackerspace HSGR, developed network technology as a tool to overcome the crisis by proposing a new progressive cultural commons due to Greece's financial crisis caus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 decrease in the state's creative support. The third case, Paolo Cirio's <Global Direct> project, promoted a critical citizenship towards the state and community systems as dominant types of social governance. These technoculture cases can be evaluated as efforts to combine and rediscover progressive political ideology and its artistic realization tradition in the context of cultural politics, paying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signifying practices of network technology that dominates the contemporary economic system.

Key words : Global Financial Crisis, Data Capitalism, Paolo Cirio, Hackerspace, Furtherfield

*정회원, 동덕여자대학교 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3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4월 15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30, 2022 / Revised: April 15, 2022
Accepted: April 20, 2022
*Corresponding Author: slim2013@dongduk.ac.kr
Dept. of Curatorial Studie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Ⅰ. 서 론: 데이터자본주의의 물적 조건과 함의

본고는 21세기 데이터자본주의 시대의 강력한 물적 토대인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와 그것에서 비롯된 사회문화적 메타포를 비판적으로 사유하여 예술적 가능성으로 전유한 테크노컬처의 실천 사례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것의 대안성과 문화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데이터자본주의의 속성과 영향력, 그리고 그 반동으로 등장한 문화예술적 콘텍스트를 검토하겠다.

데이터(data)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동시대 자본주의 금융시장은 인간과 컴퓨터의 합리적 행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적 기술주의는 일찍이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로 구상한 피드백(Feedback) 이론을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 받은 바 있다. 즉 데이터의 풍부함은 자동화된 다양성의 함정을 지니고 있고, 인간 사이의 지배적 위계의 성질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서의 데이터자본주의는 19세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지향한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으로서의 이상을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로, 그리고 인간과 정보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세계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실물경제를 표현하는 도구와 상황보다는, 스크린과 원격 커뮤니케이션 장치들로 경제모델을 이끄는 알고리즘 시스템이 전통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 하여금 자신의 감성이나 신념을 넘어 오직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선택을 따르게 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추동한 사이버 네트워크는 노동에서 여가로,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향하며 사회의 집단과 계급을 횡단하는 비물질적 정보의 흐름을 합리화한다. 그렇기에 실제적인 경제적 복잡도(Complexity)는 정량화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의 흔적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혼성적인' 본성에 자리한다. 다시 말해, 현대인은 더 이상 정보의 유저만이 아니라 생산자이기도 하다.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와 그 생산물의 이른바 '프로슈머(producer + consumer)'로서 현대인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들과의 관계성을 확대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때 동반하는 몰입의 체험은 경제적 매개자로서의 역할과 감성적 연루의 차원 모두를 더욱 다면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사이버 네트워크에서 유저들이 창의적 행동, 의사소통, 커뮤니티 구성, 콘텐츠 생산 등의 영역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일상적 모습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자본주의에서의 자본축적 경향은 유저들을 데이터의 '수동적' 생산자로 특징화한다. 즉 온라인에서의 현대인의 행위들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행위들로부터 수집되어 분석되는 데이터는 금융적으로 이용가능한 생산물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비물질적 생산시스템으로서의 데이터의 가치는 물리적 실제에 더 이상 기초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예상, 기대, 추정 등에 전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물경제와의 이러한 괴리는 데이터 형식의 투기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데이터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일종의 "자기참조적(self-referential)" 건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그런가하면 동시대의 데이터 과잉생산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잉의존의 징후 또한 데이터자본주의의 과정적 본질로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인의 거의 모든 행동 유형들의 규칙에는 컴퓨팅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과도 연결된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화'의 상태를 지향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 요소는 최소화될 뿐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통계 모델의 원칙을 따르는 시장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계급의 형성이나 그것의 유지와 직접적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주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컴퓨팅 과정의 도구들에 토대를 두는 데이터자본주의의 금융모델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며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논리와 사회적 영향력 모두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기능을 컴퓨터화함으로써 완전히 자동화된 이러한 모델에서의 모든 거래들의 결정 과정은 인간 존재를 배제한다. 그러한 구조적 배제로 인하여 인간성은 모든 의미있는 방식에 끼어들기 어렵다.

데이터자본주의가 품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결국 예

술의 문화정치적 역할에 관한 진지한 고려를 새롭게 필요로 한다. 또한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지배한 세상에서의 예술적 창의성의 맥락이 전지구적인 미적 매개체를 창안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역설적 전술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본고의 본론에서는 이러한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방법론을 대안적 실천으로 범주화하고, 그 유형별 사례들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II. 본 론: 테크노컬처의 문화정치적 실천 사례

1. 퍼더필드, <0달러 노트북컴퓨터(Zero Dollar Laptop)> 워크숍

런던 핀스버리 파크에 위치한 퍼더필드(Furtherfield)는 영국의 뉴미디어아트 현장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예술공간이다. 1997년에 작가 루스 카틀로우(Ruth Catlow)와 마크 가레트(Marc Garrett)가 함께 설립하였다. "예술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위한 새로운 관념, 비판적 사유, 상상적 가능성 등을 사람들과 연결"하는 이곳은 적극적으로 문화와 사회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대중들을 장려하는 참여적 전시와 이벤트 등을 기획해 오고 있다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가 본격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삶을 옥죄어가던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퍼더필드는 그림 1에서처럼 <0달러 노트북컴퓨터>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영국의 대표적인 노숙자 자선단체인 세인트 먼고스(St Mungo's), 영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오픈 억세스 디지털미디어 랩인 억세스 스페이스(Access Space) 등이 파트너로 협력하였다. 워크숍에 필요한 하드웨어 노트북컴퓨터는 재활용품들로 충당되었다. 그것들에 삽입된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운영체계가 아닌 리눅스 같은 무료공개 소프트웨어(Free and Open Source Software)다. 참여 교육생들은 음악·그래픽·비디오 등의 미디어파일을 만들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고 공유하였다 [3].

노숙자 교육 외에 대중들의 토론과 전시회도 포함한 이 기획의 모체는 「0달러 노트북컴퓨터 선언(Zero Dollar Laptop Manifesto)」이다. 작가이면서도 교육자이고, 자유소프트웨어 운동가인 제임스 월뱅크(James Wallbank)가 발표한 이 선언은 "0달러 노트북컴퓨터가 여기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4]. 뒤이어 선언은 "이미 보급된" 노트북컴퓨터가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기계적 특성이 무엇인지 기술하면서, 노트북컴퓨터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 존재의 시대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그렇게 '0달러 노트북컴퓨터'는 대중문화산업의 엔터테인먼트 감상을 의도한 도구라기보다는, 개인 유저를 비롯하여 NGO 단체, 소규모 자영업체 등을 위한 교육적 도구 역할을 상징한다. 바로 이런 속성의 노트북컴퓨터가 동반한 워크숍은 어떤 특정 주제의 연구나 디자인, 제조 등을 거치지 않고도 시민들 개개인을 더욱 강하게 하고, 창의성을 제고하고, 가난을 극복하게 하고, 공유된 문화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컴퓨팅 플랫폼을 지향하였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개념적 잠재성은 월뱅크의 선언에 녹아있다. 즉 이 선언의 물질화가 바로 <0달러 노트북컴퓨터>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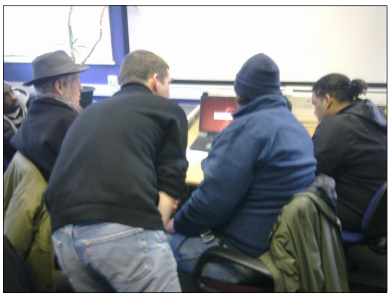

그림 1. 퍼더필드, <0달러 노트북컴퓨터> 워크숍 장면, 런던, 2010.
Figure 1. Furtherfield, "Zero Dollar Laptop" Workshop, London, 2010

제도권 교육에서 배제된 채 컴퓨팅 기술을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진행에 뜻을 함께 한 여러 시민 커뮤니티는 재활용 노트북컴퓨터들을 기부해 주었다. 튜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워크숍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교육생들의 이런 긍정적 반응은 기술적 숙달을 이루기 위한 것과 창의적 표현을 시도하려는 노력 모두가 조화를 이룬 워크숍의 의지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퍼더필드의 <0달러 노트북컴퓨터> 워크숍은 시민들이 예술과 테크놀로지가 서로 관계하는 배움과 교육을 통해 사회변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사유할 수 있는 유용한 범례를 제공한다. 과연 뉴미디어

아트 프로젝트가 단지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에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현실사회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 워크숍은 '긍정'의 가능성을 답변해준다.

퍼더필드의 실천은 경제적 파국의 맥락에서 데이터 자본주의 네트워크 문화의 도구와 프로세스 등과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실용주의적 의도나 이론적 지침에 지배되지 않으며 커뮤니티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예술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워크숍 기간 동안 테크놀로지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익힘으로써 노숙자 참여자들이 경험한 일종의 '자기 주도적' 창의성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테크놀로지를 획득하고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행위의 반경을 확장해 주었다. 화려한 최첨단 기능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학습은 아니었을지라도, 퍼더필드의 워크숍은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의 문화적 가능성을 모색하며 컴퓨터 기반의 기교들을 탈신비화 하였기 때문이다.

2. 그리스 해커스페이스, "Hackerspace.gr(HSGR)"

본고에서 시도하고 있는 테크노컬처의 문화정치적 역할에 대한 대안적인 이해의 파급력은 아마도 전통적인 예술제도권의 틀에서 벗어난 좀 더 확장된 진보적 실천이 대중에게 제안하는 개념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데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렇다면 데이터자본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의 부작용들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확인하는 혁신적인 실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그것은 위기의 시대 속에 사는 인간 존재의 지배적 유형들에 대한 재상상을 촉구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면, 그 실천들의 진보적 기여는 자체의 내용적 측면 못지않게 '물리적' 현전의 조건들에 대한 대안성에서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데이터자본주의의 글로벌 위기를 이겨내려고 좀 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문화운동의 한 부문으로서, 세계 곳곳에 자리한 해커스페이스(Hackerspace)는 대중과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전술적 미디어의 수행적 특성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사회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도구를 개발하려는 몇몇 위기의 국가들 내 창의적 커뮤니티의 적극적 요구로부터 발흥되었다.

비영리적 공간으로서 전문가 커뮤니티 기반으로 운영되는 해커스페이스는 일명 '작업 공간(maker-space)'으로도 불린다. 대체로 해커스페이스에서는 컴퓨팅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계장치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사상과 지식까지 집단적으로 조정하고 공유함으로써 테크노컬처에서의 진보적 조직 운영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실천 사례들 가운데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것은 그리스 아테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림 2의 'hackerspace.gr'(이하 HSGR)이다. HSGR은 2011년 5월에 설립되었다. 이곳의 구성원들은 추구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면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공간을 여럿이 함께 쓴다. 의사결정의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된 월례 미팅을 통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로서의 전체적 기능에 관한 합의의 결론을 모아낸다. 모든 활동들은 홈페이지에 충실하게 기록된다. 조직의 재무 보고서들은 일반 관객도 자세히 열람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되어 있다.

그림 2. HSGR 연구공간, 그리스 아테네
Figure 2. An overview of Hackerspace.gr Main Lab in Athens, Greece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의 방침은 '하다'라는 의미의 'do'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를 조합한 용어 "두-어크러시(do-ocarcy)"의 정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5]. 즉 HSGR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과 과업을 선택하고 실행하기를 권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에게 부여된다. '공유지(commons)'로서 탈중심적 구조의 자기-거버넌스(self-governance)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HSGR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아테네의 해킹 커뮤니티의 주요 미팅 장소가 되고 있고 오픈 하드웨어, 자유소프트웨어, 그리고 오픈 과학/테크놀로지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들 대

부분은 하드웨어 해킹, 대안적 소셜 네트워크, 3D 프린팅 같은 활동들과 관련한다 [6]. 뿐만 아니라 도시생활의 지속가능한 방법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자전거 타기나 카풀처럼 환경 친화적인 교통 형식을 장려한다거나, 공중재배법(aeroponics)처럼 식용 식물을 가정에서 키우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등의 여러 프로젝트들로 표현된다 [7].

전 세계 곳곳의 해커스페이스처럼 HSGR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그리스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이 감소할 때, 비물질적 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디지털문화 관념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기획 실천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문화적 재건을 시도하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과정은 단순히 자생적인 예술적 실천의 기회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달성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정치적 사유와 행동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파올로 치리오, <글로벌 다이렉트>

1979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개념주의 예술가 파올로 치리오(Paolo Cirio)는 전지구적 정보사회의 경제와 문화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두고 동시대 테크노컬처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회의 제 영역, 가령 프라이버시, 카피라이트, 민주주의, 금융 분야에서의 이슈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오고 있다. 그의 예술적 표현 형식은 인쇄물, 설치, 비디오, 공공미술 등으로 다양하다.

2014년 겨울부터 시작한 치리오의 프로젝트 <글로벌 다이렉트(Global Direct)>는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진보하면서 형성된 국가 체계의 변화와 그 대안적 시스템의 본질에 대한 치리오 자신의 확장적 관심사와 주장을 한 데 모은 일종의 연구플랫폼이다 [8].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의 핵심 요소는 입법과 사업, 그리고 경영 측면에서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여주는 15개의 흐름도이다. 치리오의 다이어그램은 네트워크 구조의 패러다임을 이용한 것으로서 정보의 여러 구성요소들을 상호 연결한다. 흐름도의 내용은 대형 인쇄 출력되어 전시장 벽면에 부착되거나 비디오 영상의 형태로 소개되어 그 내용이 선언적으로 요약되었다. 인터넷 유저 누구라도 치리오의 구체적 주장을 담은 텍스트를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다.

치리오의 흐름도 다이어그램은 시각적으로 네트워크 건축물이나 알고리즘 디자인을 연상하게 한다. 개방되고 투명한 프로세스 내에서의 협업적 노력들을 추동하는 탈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서의 거버넌스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연결성은 자율적인 참여적 사회조직의 형태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치리오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했고, 그러한 민주적 모델의 프로토타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전지구적 문명화의 이상적 비전을 <글로벌 다이렉트>를 통해 꿈꾸고자 하였다.

국가권력의 대안적 틀을 모색하려는 이 프로젝트의 의도를 접한 관객들은 국회나 법원, 혹은 그 밖의 공적인 정부기관의 조직도를 참여적 의사결정, 투명한 재정, 시민 의식 등의 3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사실상 치리오가 제안한 여러 시스템들은 로컬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유연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전지구적 민주주의 형태를 새롭게 생성하기 위해 조합될 수 있다. 아울러 독립적인 디지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을 통해 세계 시민의 상호작용과 교환을 생성할 수 있는 사회운동적 기능도 발휘한다.

그림 3. 파올로 치리오, <글로벌 다이렉트> 전시장면, 뱅쿠버 아트 갤러리, 2015
Figure 3. Paolo Cirio, An overview of exhibition <Global Direct>, Vancouver Art Gallery, 2015.

이러한 대안적 시스템의 중요한 방향성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집단적 목소리와 모든 국민들의 의지는 정부나 기업의 어떠한 간섭 없이 민주적으로 정책을 창안하고 폐지하고 강화할수 있다”는 것이다 [9]. 즉, 치리오의 시스템이 선택한 분산적 네트워크 구조는 국민들의 의지가 경청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를 제안한다. 그 속에서 시스템의 각 부문들은 지속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상호적으로 공동 수행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 다이렉트>는 현재의 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인 풍경에 대한 대안을 배치한다. 이는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에 기초한 대안적 모델이 무엇인지 사유할 수 있는 창의적 의지를 권하게 된다. 결국 치리오의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를 좀 더 창의적이고 비관습적인 방식으로 재조직화함으로써 미래의 정치적 지향과 조직체계를 꿈꾸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 칭할 수 있겠다.

III. 결 론

사실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콜렉티브와 문화기관은 정치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구체화하여 좁힐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왔다. 직접적이고 생산적인, 현실에서의 실제적 변화를 생성할 가능성을 지향함으로써 '미완의 리얼리티'를 완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한 것이다.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도구로 활용하여 그것이 현실에 미친 의미화에 주목한 그들은 데이터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과 삶의 위기를 연결 지어 다양한 해결의 접근법을 전개하였다. 이는 동시대 사회경제적·문화적 존재의 대안적 모습을 찾기 위함이었다.

퍼더필드의 <0달러 노트북컴퓨터> 워크숍은 반경제적 계급으로 인식되는 노숙자에게 데이터자본주의의 동력인 비물질적 노동과 그것의 매체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그 과정은 이윤과 효율보다는 예술적 표현과 공유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그리스의 HSGR은 공동의 진보적인 '문화 공유지' 유형을 새롭게 제안하여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개발하였다. 치리오의 <글로벌 다이렉트>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지배적 유형으로서의 국가와 커뮤니티 시스템을 향한 비평적인 시민의식을 제고하였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살펴본 테크노컬처 사례들은 동시대 경제시스템을 장악한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의미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회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의 역할을 찾겠다는 문화정치적 대안 모색의 맥락에 놓인다 [10]. 이는 진보적 정치 이념과 그것의 예술적 실현의 전통을 서로 역동적으로 조합하고 재발견한 노력으로서 동시대적 성찰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References

[1] Christian Marazzi, 'Conventions and disruptions,' in Ricaardo Bellofiore and Giovanna Vertova (eds.), *The Great Recession and The Contradictions of Contemporary Capitalism*, Cheltenham: Edward Elgar, 2014, p.89.

[2] 'About'(Furtherfield.org) <https://www.furtherfield.org/about-us/> (Accessed 2 March 2022)

[3] Jennifer Gabrys, *Digital Rubbish: A Natural History of Electron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3, p.154.

[4] James Wallbank, 'James Wallbank Says: The Zero Dollar Laptop Manifesto' <https://robvankranenburgs.wordpress.com/2007/10/11/james-wallbank-says-the-zero-dollar-laptop-manifesto/> (Accessed 2 March, 2022)

[5] Sarah R. Davies, *Hackerspace: Making the Maker Movement*, Cambridge: Polity Press, 2017, p.48.

[6] Antonios Broumas, *Intellectual Commons and the Law: A Normative Theory for Commons-Based Peer Production*, London: University of Westminster Press, 2020.

[7] Hackerspace, 'Aeroponics'(Hackerspace.gr) <https://www.hackerspace.gr/wiki/Aeroponics> (Accessed 2 March 2022)

[8] Paolo Cirio, 'Global Direct'(Globaldirect.today) <http://globaldirect.today/> (Accessed 2 March 2020).

[9] Paolo Cirio, 'About'(Globaldirect.today) <http://globaldirect.today/about/> (Accessed 2 March 2020).

[10]Shan Lim, "Alternative Ideas of Publicness in Contemporary Public Art,"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7, No.3, 2021, 199. https://doi.org/10.17703/JCCT.2021.7.3.197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4975).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5A2A01064975).